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국기독교
장로회

장유중앙교회



찬송가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찬송 음원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설날에 우리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분주함과 염려, 섭섭함과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비교와 고집, 정죄와 원망, 차가운 말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새 힘이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이 가정의 삶을 위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주변을 비추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 에베소서 5:8-9(새번역) ----- 인 도 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말씀 나눔 ----- '나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 인 도 자

찬 송 ---찬405장(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같 이

주 기도문 ----- 다 같 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새해의 출발은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보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더 잘 살아야지"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기 전에,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빛나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고후 5:17). 거기에 걸맞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밝아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세 가지 열매를 제시합니다.

첫째, 선함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작용합니다.

선함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을 살리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명절에 하고 듣는 말 한마디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맙다”, “고생 많았지?”, “네가 있어 든든해.” 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을 밝힐 것입니다.

둘째, 의로움입니다. '화목을 선택하는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바른 길은 '사랑'입니다. 내 고집이나 서운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손 내밀고 관계를 세우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 앞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길인가?”를 먼저 물었으면 합니다.

셋째, 진실함입니다. '꾸미지 않는 순수함과 정직함'입니다.

빛 아래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할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서로에게 솔직해질 때 가정은 비로소 참된 쉼터가 됩니다. "미안해", "기도해 줘"라고 말하는 진실함이 우리 가정을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밝고 환한 삶을 위한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하게 대하고, 화목을 선택하며, 진실하게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가정이 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복된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